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4년도 표어 ☉

보혜사 성령이여 깨끗케 하소서(시51:10)

☉ 행동지침 ☉

- 1. 바른생활
- 2. 바른교회
- 3. 바른국가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영혼의 양식 - 소신지서 강해

참 신앙인의 격려

(스가라 7:11 - 8:8)

하나님께서는 벨엘에서 온 사람들의 금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Formalism(형식주의)을 금하라는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은 금식보다는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형식과 규례에 매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실 뿐더러 받지도 않는다고 하십니다.

1. 조상들의 불신앙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을 떠나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형식에 매인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이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행하는 것은 슬픔을 나타내는 것인데 하나님께 해방의 약속을 받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의 근심과 내일의 염려에 짓눌려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7:11).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뻐하라는 말씀을 수없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듣기 싫어했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7:12).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강박하여 금강석같이 단단합니다. 그들의 마음 받은 너 무나 굳어 믿음의 뿌리가 도무지 내리지 않습니다. 순종의 열매는 커녕 믿음의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리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땅은 황폐해지고 백성들은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7:14).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막을 수 없는 바람, 곧 재앙과 환난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온 나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 같은 모습을 말씀하시며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같이 망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불려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려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7:13).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이스라엘을 불렀는데 그들이 응답하지 아니하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를 때에 듣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통하여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순종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100%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토해 버리십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순종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100%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토해버리십니다.

2. 예루살렘에 임할 복

“만군의 여호와와 내가 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8:2).

질투는 히브리어로 ‘카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간적인 시기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뜨거운 관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곳에 관심을 가질 때 질투하실만큼 사랑하십니다.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와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8:3).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임재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패역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들의 이 같은 패역을 기억하며 이 죄를 반복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한다면 하나님으로만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서 감사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북한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세계 1, 2위에 든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아사 하는 인구가 가장 많은 북한 사람들의 행복이

진정한 행복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행복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의 대상이므로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오고, 기도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며 말씀대로 살겠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쳐오고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진리의 성읍인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은 신실해야 하고 충성스럽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세워졌고,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한 그 곳에 성전을 짓도록 하신 것입니다.

스가라의 예언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못하다가 메시아가 오심으로 믿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믿고 순종하면 늙은 사람도, 어린 아이들도 평안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8:4-5). 예루살렘에 이와 같은 평화가 올 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놀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산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방에서 다시 모아주시는 것입니다(7-8절). 대륙에서 섬나라에서, 도시에서 농촌에서 다시 말해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8절)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므로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4기 단기선교단 2004 농촌전도대 파송식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그 동안 모든 성도들이 큰 관심을 갖고 기도로 함께 준비해온 제4기 단기선교단과 2004 농촌 전도대가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파송식을 갖는다.

제4기 단기선교단은 방글라데시로 파송 받아 현지인들에게 8월2일(월)부터 11일(수)까지 10일간 복음을 전하며 집짓기와 이미용 봉사, 의료 봉사 등으로 사역하게 된다.

또한 농촌봉사대는 경상북도 봉화 지역에 소재한 분천 <제4기 단기선교단 명단>

중앙교회로 8월10(화)부터 13일(금)까지 4일간 어려운 형편에 처한 농촌 교회를 도와 이웃주민들에게 이미용 봉사와 의료봉사 등을 통해 전도를 하고, 현지교회에 힘을 불어넣으며 부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뜨거운 이국의 태양 아래서 선교활동을 펼 제4기 단기선교단과 10년만의 무더위와 싸우며 전도하게 될 농촌전도대의 사역을 위해 모든 성도들의 절실한 기도가 요청된다.

<2004 농촌전도대명단>

- 단장: 오정수 장로
- 지도: 윤영국 목사

왕경래 홍성주 최형열 이양철 전용순 이영희 김찬진 곽숙 이자혁 문옥일 김영주 박덕호 김순덕 손재영 노창훈 오명걸 조남현 박준희 이승준 곽정임 김진희 강혜주 곽소은 이조은 이한나 조대선 유수진 한대석 이윤혜 박정범 (32명)

- 대장: 이관규 장로
- 지도: 이규정 목사

오광환 장양일 최광성 김규태 양춘경 최규초 김숙자 김선미 김시환 박재원 이승우 정동호 이인근 박우찬 조동완 국산옥 이순희 최태희 함연호 이동수 김경철 임송자 김종운 윤숙희 김명숙 김우숙 문옥희 박현영 주경자 박미혜 김현정 이봉선 심상필 임윤자 최복애 장부자 오주명 (39명)

2004 하반기 장학생 선발

8월8일(주) 찬양예배시간에 수여식 가져

천국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는 우리교회 장학회(위원장 대령 전기섭 장로)는 연간 계획에 따라 전반기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데 이어 오는 8월8일(주) 찬양예배 시간에 하반기 장학생에게 장학금이 수여된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은 중등부 5명, 고등부 5명, 대학부 11명, 청년부 1명, 에바다부 1명, 김복녀 권사 장학생 2명 등 총 25명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로 선발하였다. 2004년 하반기 장학생들은 다음 주일(8일) 찬양예배 시간에 필히 참석하여 장학증서를 수여 받아야만 장학금이 수여된다.

더욱 많은 학생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학업을 쌓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한다.

2004 하반기 장학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중등부: 김성민 권강훈
최동현 서정선
박건희
- 고등부: 임지영 윤원희
손현호 김지영
임병우
- 대학부: 박준희 이조은
이윤혜 구진경
곽희규 한대석
장윤정 김민옥
곽소은 신범석
오주명
- 청년부: 이용필
- 에바다부: 홍유미
- 김복녀 권사 장학생: 박광일 손재영

7월 새가족 환영회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매월 첫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지난 달 새로 등록한 성도들을 교회와 성도 앞에 소개하고 있는 우리교회는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지난 7월 한 달간 우리교회에 등록된 새가족을 환영하는 시간을 갖는다.

7월 중에 새로 등록한 새가족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호영 길지호 김진인 김경인 김경태 김광현 김근조 김도현 김리수 김성정 김수자 김영복 김용빈 김은주 김일연 김정화 김정희 김종렬 김지훈 김진영김현옥

김효인 나윤지 류승혜 박민경 박선정 박인성 박인자 박희경 서문상 서준호 성자영 손문자 손서현 손종현 송선주 손지문 신동일 신운수 신지연 심상숙 안성희 윤명천 윤복래 윤성혜 윤지혜 윤소연 윤영희 은영일 이건수 이귀선 이동국 이명숙 이명주 이미선 이상석 이승훈 이예진 이윤미 이정성 이혜린 이호선 전엽순 전훈덕 조연수 조연수 조연실 조연희 조준희 조현배 조호훈 조효민 차신혜 최순례 최원향 홍다혜 홍승필 황덕분 이상 78명

만민에게 전도- 제4기 단기선교팀 개인기도제목

기도외에는...



이영희 권사

· 방글라데시를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좋은 여건 허락하여 주옵소서.



김진진 권사

·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방글라데시인을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 있게 맡은 일 잘 감당케 하옵소서.



김영주 집사

· 탐원 모두 건강하게 단기선교를 잘 다녀오도록 도와주옵소서.



노창훈(청년부)

· 직장에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단기선교가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소서.



김진희(대학부)

· 일정과 계획들 순조롭게 진행되어지길
· 주님위해 마음껏 쓰임 받고 있을 수 있도록
· 완전히 변화 받을 수 있는 귀한 경험 되도록



한대석(대학부)

· 방글라데시를 더욱 사모하고 그곳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선교대원들이 하나 되어 주님 사랑을 바로 전하고 올 수 있도록

· 지금 홍수 피해로 인해 방글라데시 사정이 안 좋는데 선교대원들 건강히 선교 활동하고 방글라데시도 빨리 피해 복구할 수 있도록



이윤혜(대학부)

· 나를 내려놓고 주 앞에 온전히 쓰임 받도록
· 단기선교 일정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박정범(대학부)

· 건강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 방글라데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만민에게 전도 - 제4기 단기선교팀 파송을 앞두고

방글라데시를 사랑하게 하소서!



오정수 장로
(제4기 방글라데시 단기선교팀 단장)

이절 아쁘니께 발로바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 하십니다)

“..... 지금 상황이 홍수에 무너진 집 등..... 많이 심각한 상황인데 오셔서 5채의 집을 같이 지어 주셨으면 합니다..... 한 집을 짓는 데는 약80불입니다.....”

현지에서 메일로 온 내용의 일부부분으로 우리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저 방글라데시를, 서울교회 제4기 단기선교단 32명이 8월2일부터 11일까지 9박10일간 수도 다카와 농업지역 사라지건지에서 복음을 들고 갑니다. 회교 88%, 힌두교 10%인 저 나라에 그리스도의 일꾼 되어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나가려 합니다.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라”(요17:19)는 개강예배 때 전하신 담임목사님 말씀을 붙잡고 지난 4월부터 15주의 선교훈련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방글라데시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여

왔습니다. 성육신과 선교의 관계를 생각하며 이제 그동안 기도하고 훈련 받은 대로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카에서 4시간 정도 북쪽에 있는 사라지건지에서의 집짓기와 다카 시내의 초등학교 전도집회, 빈민가 탁아소 사역과 우리교회가 보낸 선교사 스브로토바로이 목사님이 개신에 덴교회에서의 모든 전도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한 곳의 예상 환자수가 약 300여명, 이미용 대상자가 60여명, 성경학교 대상자가 400여명, 고아원 어린이 약 260여명 등 모두 6곳에서 총 2,000여명을 대상으로 섬 가쁘게 사역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수도 다카는 70%가 물이 잠겨 있습니다. 더러운 물에 감염된 피부에 바를 약과, 이질과 바이러스성 설사, 중이염과 무좀약, 항생제 등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동안 뜨겁고 간절한 기도와 땀 흘려 얻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선교단이 방글라데시를 사랑하며, 복음을 전할 그 주의 환경과 방글라데시인들을 위하여, 그리고 선교단원들의 건강을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천국일꾼양성-여름수련회를 마치고

주예수를 믿으라!

디아스포라부 -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고등부- 주예수를 믿으라!!!

탁경준 집사(디아스포라부 부감)

북한을 탈출하여 자유 대한민국에서 새 삶에 적응해 나가고, 하나님의 품에서 믿음의 초석을 다지고 있는 디아스포라 형제들이 처음으로 서울교회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50여명의 디아스포라 형제자매, 교사들이 강원도 동해시 쌍용양회훈련원에서 7월23일,24일 이틀간 여름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쏟아붓던 장마가 끝나고 작열하는 삼복의 햇살을 온통 짙어지고 영동고속도로를 달릴 때 우리들의 형제자매들은 녹음이 짙은 푸른 산야를 보며 새로운 세상을 보는 듯 신기해했습니다.

동해에 도착하여 저들은 약 사백만평의 석회석 광산과 자동화된 거대한 공장을 견학하며 세계적인 산업규모의 현장을 목격하고 매우 감격하였습니다.

첫 날 저녁 초보 신앙인이 반드시 공부해야 할 요한복음서 1장~21장까지를 가장 쉬운 강해로 밤12시가 넘도록 공부하다가 남은 장은 새벽에 마무리하며 말씀의 양식을 섭취하며 디아스포라 형제자매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쁨이 넘쳤습니다.

생사를 걸고 북한을 탈출했던 이들의 용기와 의지로 저들이 하루빨리 이곳에서의 생활에 적응하며 믿음의 뿌리와 삶의 뿌리를 내리어 이 자유의 땅에서 곡식이 영글어 가듯 그렇게 영글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 드립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 수련회는 그들의 단회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뜻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쉽 없이 주야로 보살피는 박광일 전도사님의 모습에 서울교회는 벌써 통일 후 북한선교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듯합니다.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디아스포라부에 지속적인 관심을 바랍니다.

박선영 (고등부1)

타국에서 힘들 때 제일 생각하는 건 서울교회에서 내손을 잡고 우시며 기도해주시던 모든 분들이었다. 이제는 내가 그런 힘든 형제, 자매 손을 잡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이번 수련회에서 결심했다.

임연주 (고등부 2)

‘천로역정’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밤늦은 시각 어둠속을 헤치고 다니는 가운데 주님은 나를 만나 주셨다.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의 고통을, 눈을 가리고 걸으면서 정말 주님은 나의 지할 분이시라길, 죄목록을 쓰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유서를 쓰며 하나님과 주위 사람들에 다시 감사할 수 있었다.

최화미 (고등부 2)

프로그램 하나하나에서 불평, 불만이 아닌 기쁨과 감사함을 배웠다. 십자가를 지고 운동장을 돌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들게 나를 구원해주셨다는 것을 느꼈고, 관체험, 유서쓰기 등에서도 많은 것을 깨달았고 계속 감사하게 되었다. 이렇게 수련회에 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기 감사하다.

한상의 (고등부2)

저녁 집회시간, 목사님 설교 말씀 말씀마다 감동이 오고 찬송 하나하나에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 부끄러웠고 기도하는 순간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김지연 (고등부2)

겨울 수련회 때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다짐했었는데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나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고 겸손함을 배웠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소중한 순간이었다.

김명은 (고등부 3)

많은 은혜를 받았던 저녁집회시간, 서로 기도해주고 축복하며 주며 찬양할 때 진정한 크리스천의 사랑을 느꼈다. 여름 수련회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 이번에 은혜 받은 시간은 내 인생을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었다.

고고영철 집사님을 그리워 하며

긴 외출

신동기 권사(12교구)

천지를 가득메운
소리없는 울음
떨어지는 햇속에
흠뻑은 비를 털어내고
황금빛 알몸으로
긴 외출 떠나신 님

꼭 하루만이라도
함께 울어줄
그 누군가를 찾던
기막힌 새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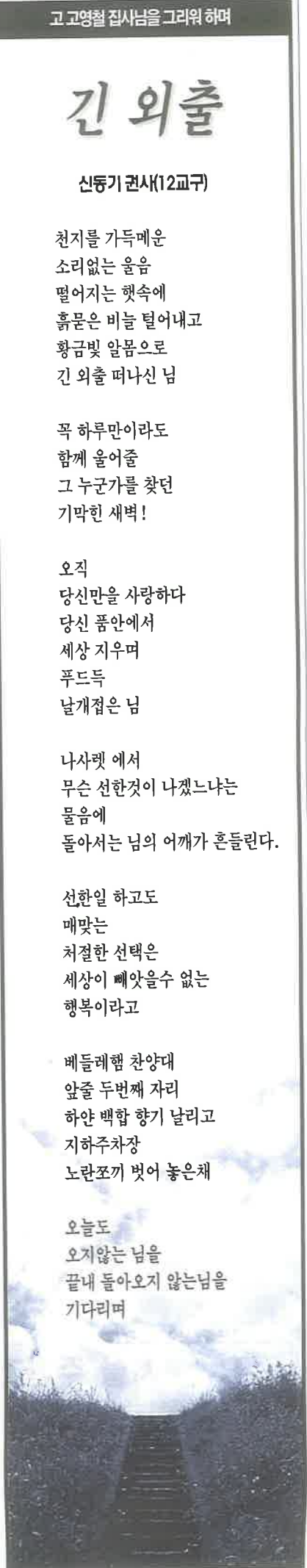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다
당신 품안에서
세상 지우며
푸드득
날개접은 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것이 나겠느냐는
물음에
돌아서는 님의 어깨가 흔들린다.

선한일 하고도
매맞는
처절한 선택은
세상이 빼앗을수 없는
행복이라고

베들레헴 찬양대
앞줄 두번째 자리
하얀 백합 향기 날리고
지하주차장
노란조끼 벗어 놓은채

오늘도
오지않는 님을
끝내 돌아오지 않는님을
기다리며





여름철의 눈 보호

주영광 성도 (1교구, 실로암인파 진료부장)

여름은 태양의 계절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일조량이 많고 야외에서 지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여름은 우리의 피부뿐만 아니라 눈에도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주는 계절이다. 햇빛에 의해 눈의 구조중에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되는 망막손상이 야기된다는 것은 수 세기 동안 선대들에 의해 인식되어 왔으며, 특히 태양을 주시 할 때에 시력상실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정상적으로 눈은 여러 가지 기전으로 광손상으로부터 망막을 보호한다. 빛의 파장은 짧을수록 망막손상을 잘 일으키므로, 자외선과 청색광이 가장 위험하다.

다행히 수정체가 근자외선의 대부분을 흡수하여 이들 광선으로부터 망막이 손상받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 다른 방어기전으로 밝은 곳에서 동공이 작아지는 현상, 눈썹에 의한 그림자 형성, 각막표면에 수직으로 들어오지 않는 빛의 반사, 눈동리, 눈감박임 및 찡그림, 사위반응 등을 통해 하나님의 오묘한 설계대로 태양으로부터 우리의 눈은 보호를 받는다.

일광망막병증은 태양의 직간접적인 주시로 야기되는 망막손상이다. 자기도 모르게 잠시 태양을 바라보았을 경우 정상적인 생리 및 대기 상태하에서는 대개 안전하지만, 낮동안 야외에서 위로 쳐다보는 것은 위험하다.

태양을 직접 주시하지 않더라도 젊은 사람, 백내장 수술 받은 환자는 화창한 날에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거나 겨울에 스키를 탈 경우와 같은 밝은 주위 환경에서는 적절한 자외선 차단용 색안경을 착용하도록 주시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sunglasses를 구입할 때에는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lens의 자외선 차단율을 꼭 확인해야 하며 눈의 보호차원에서는 lens가 큰 sunglasses가 보기 좋을 뿐만 아니라 기능도 탁월하다고 볼 수 있다.

천국시민양성 - 장년부 수련회를 마치고

하나님을 즐거워 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만남



매우 유쾌한 시간이었다. 안민 장로님의 찬양과 간증으로 이어진 '장년부 가족찬양 수련회'는 시간 내내 웃음 속에 허를 찌르는 날카로운 자기 성찰과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있어 듣는 우리 모두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었다.

23일 '2004 장년부 가족찬양 수련회'는 많은 성도들의 참여 속에 오후 6시부터 식사, 찬양, 예배에 이어 찬양집회가 있었다. 하늘나라에까지 전달되는 글로리아 중창단의 찬양이 온교회를 채우고 개강 예배에서 이종윤 목사님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에 합당한 은혜로운 말씀을 주셨다. 이 목사님은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도를 즐거워하는 사람,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를 판단하지 말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즐거워 하는 생활이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다.

이어 수련회는 고신 대학교 교수이며 찬양 영역을 하시는 안민 장로님의 찬양 간증 집회가 있었다. 시간 내내 기쁘고, 혹은 목이 메이는 간증 가운데 특히 가수 하모 집사의 걸어 온 길을 말씀하시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인간들의 욕망의 표본을 지적하였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과 인기를 찾아 정신없이 달려가던 그에게 도착한 곳은 박수와 인정이 아닌 절망의 끝이었다. 우리 중에 이와 비슷

한 경험을 한 사람들도 꽤나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 일찌감치 이 모든 것들이 허무하고 결국 물거품처럼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믿음의 식구를 만난 행복한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믿음의 사람이 참되게 살아야 할 말씀이었다.

성도들은 말씀대로 좁은 길로 가는 사람,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하는 사람, 아무도 투자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부활과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안 장로님은 말했다.

항상 구원과 생명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는 우리로 당신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는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을 깨닫고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은혜 안에 거하며 주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겠다.

이날 밤 늦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소리 높여 찬양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한다.

유명희 (편집부)

동정

- 이종윤 목사는 4일(수) 신촌세브란스 병원 교직원 예배에서 설교한다.
- 이승선 (11교구) 파이프 오르간 독주회 8월 2일(월) 7:30 경동교회
- 득남: 정순구 김혜영 성도 가정(7교구) 7월 28일
- 이전개업: 이복규 장로(10교구) (주)리얼티 코리아 청담동 32-6 현대빌딩 202호 T514-1221
- 정무균 집사 7월 26일 우리밀 갈곡수 체인점 개업 (밀수레 우리밀 갈곡수, 역삼동) T501-7713
- 교역자 휴가: 이성득 목사 (2~7일) 대행: 이규정 목사
한상은 목사 (2~7일) 대행: 오정식 목사
- 주간 식당 봉사: 스테반회 (8월 1일) 권사회 (8월 8일)
- 금주의 식사: 홍승전 집사(황정임 권사 가정) 강래를 은혜중에 마치고

교회 단신

1. 지난 주 순례자에 발표된 대로 8월 한 달간 다락방 모임을 윈다. 다락방장과 교구간사들은 전화심방을 하여 유고사항 등 중요한 일이 발생하면 교회로 신속하게 연락되도록 한다.
2. 불별대위가 계속되는 여름철을 맞아 주일 날 각 호실을 사용하는 부서에서 음식물을 흘리거나 남기고 가게 되면 부패하고 벌레가 생겨 위생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주일날 부서모임이 끝나면 각 부서에서는 책임 있게 뒷정리를 하여 위생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부탁드린다.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TV	케이بل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 30분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수 오전 7시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종미 지역 해외방송)
라디오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 30분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호산나넷 - (http://hosanna.tv) 기독교 TV - (http://www.cts.tv)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가을사경회 (9월 6일~10일)와 헌당을 위한 건축헌금을 위하여
2.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자녀들을 위하여
3. 방글라데시 단기선교팀, 농어촌 선교팀을 위하여
4. 국론 통일과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 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 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

